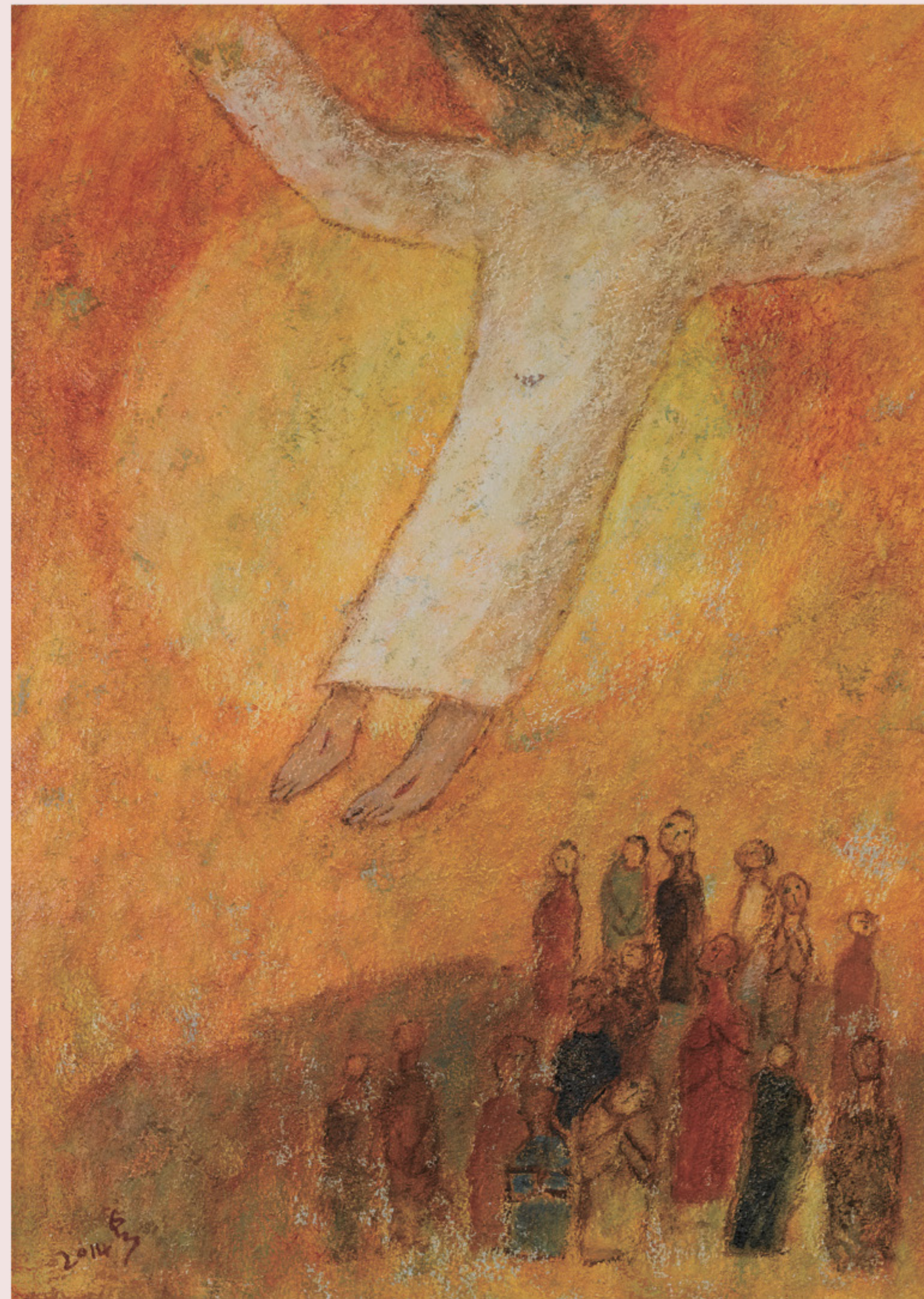




# 주님승천대축일(5월 21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마태 28,16-20)



##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28,19-20)

주님 승천 대축일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안겨 줍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상으로 오르셨듯이,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끝마치면 우리의 본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6. 1.)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7번 “부활하신 주 예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6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마태 28,17)

우리가 예수님을 뵈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닫혀 있었을 때를 나누어 봅시다.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인성이 하느님의 천상영역으로 결정적으로 들어감을 나타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원들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나이팅게일(1820-1910)은 크림리아 전쟁 때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많은 군인들을 치료해주었다. 그는 의사들이 포기한 환자조차 죽음의 공포를 덜어주고 새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어떤 환자든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많은 환자들을 소생시켰다. 그녀는 군인들에게 「등불을 든 여성」으로 존경받았다. 종전 후 영국 국민들은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을 바꾸어 몰래 귀국할 정도로 겸손한 여성이었다. 오늘날에도 국제 적십자사에서는「나이팅게일」상을 제정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간호원에게 표창하고 있다. 간호원이 될 때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크림리아 전쟁 때의 일화이다. 그녀는 병원의 마루를 닦고 있었다. 담당의사가 “시간 있으면 쉬도록 하세요”라고 하자, 그녀는 “이 손은 하느님이 주신 손입니다. 제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대신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다.

나이팅게일의 봉사활동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한 기자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나이팅게일은 “오직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맡

기고 사는 것뿐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일생 언제 어느 때나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 신앙인의 전형이다.

실제로 신앙이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신앙인의 가장 큰 은총은 하느님과 함께 살며, 그분의 보호하심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팅게일은 참다운 신앙인이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41번 “죽음을 이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